

인간 향상과 인간의 본성 - 후쿠야마의 향상 반대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채 리*

【주제분류】 문화철학, 기술철학

【주요어】 인간향상, 인간본성, 후쿠야마, 향상반대, 평등, 도덕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인간 본성에 호소하여 향상을 반대하는 후쿠야마의 전략을 비판함에 있다. 후쿠야마가 향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의 원천이므로((H1)) 본성을 변경하는 향상은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위협적인 것이며((O1)) 둘째, 인간의 본성은 평등의 근원이므로((H2)), 본성 변경은 비향상인에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며(O2)) 셋째, 인간의 본성은 상호존재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H3)), 본성 변경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O3))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첫째, (H1)은 설득력이 미흡하며, (H1)에 따르는 (O1)은 새로운 도덕이 생성됨을 함축할 뿐, 도덕성 붕괴의 위협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H1)에 의한 (O1)은 향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둘째, (H2)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평등의 원리가 아니며, (H2)는 (O2)를 함축하지 않고, (H2)에 의한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으므로 (H2)는 후쿠야마의 논증에 필요한 전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셋째, (H3)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며, (H3)는 (O3)를 함축하지 못하므로 (H3)를 통해서 향상을 반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 본성 개념에 호소하여 향상을 반대하려는 후쿠야마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인간은 생명공학, 뇌신경과학, 나노기술, 정보기술 등 최첨단 과학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교육전담교수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조건을 ‘향상(enhancement)’시키고 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노화를 억제하고,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강화하며, 수명을 연장한다. 예컨대 인간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장을 늘릴 수 있으며,¹⁾ 노화된 피부와 연골을 재생시키고, 인지능력과 정서 상태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²⁾ 석기시대에 20-34세였던 평균수명은 80세로 연장되었다.³⁾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인간은 언젠가 컴퓨터화된 뇌를 가지고,⁴⁾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하며, 노화된 신체를 인공 신체로 교체하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⁵⁾

이러한 ‘인간 향상’은 환영할만한 것일까? 트랜스휴머니스트들⁶⁾(trans-humanist)은 인간 향상이 무한한 건강과 지적 능력, 감정 통제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⁷⁾ 반면에, 후쿠야마(F. Fukuyama)⁸⁾는 인간 향상을 지지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⁹⁾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인간 향상은 첫째, (O1) 인간의 도덕성을 변화시키고, 둘째, (O2)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셋째, (O3)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무한한 건강과 지적 능력을 부여해 주는 향상 기술은

- 1) 성장 호르몬 요법은 신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근육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가 정상인의 근육에 사용되면 근육을 강화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Sandel, M., 강명신 역,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2012, 37-40쪽, 44-7쪽.
- 2) 이상현, 『융합시대의 기술윤리』, 생각의 나무, 2012, 139-42쪽.
- 3) N. Bostrom & R. Roache,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New Waves in Applied Ethics* eds., J. Ryberg & T. Peterson, Pelgrave Macmillan, 2008, 122쪽.
- 4) Marina Maestrutti, "Cyborg Identities and Contemporary Techno-Utopia", *Journal International de Bioethique* vol. 22, No. 1-2, 2011, 84-5쪽.
- 5) Babin, D., 양영란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공리, 2007, 26-33쪽, 61-71쪽.
- 6)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운동으로서 이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라 부른다. 보스트롬(N. Bostrom), 커즈와일(R. Kurzweil), 모어(M. More) 등이 이에 속한다.
- 7)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Bioethics*, vol.19, No. 3, 2005, 203쪽.
- 8) 역사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후쿠야마는 카스(L. Kass), 샌델(M. Sandel)과 함께 인간향상 기술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생명보수주의자이다.
- 9) Fukuyama, F., "Transhumanism", *Foreign Policy*, No.144, Sep/Oct., 2004, 42-3쪽.

인간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변화시키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을 위협하는 일이며, 인간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후쿠야마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본성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H1) 인간의 본성은 도덕성의 원천이다.

(H2) 인간의 본성은 평등의 근원이다.

(H3) 인간 본성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가진다.

즉, 후쿠야마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도덕성의 근원이며((H1)) 평등의 원천((H2))이므로 본성을 변경하는 인간 향상은 도덕성과 평등을 위협하는 것이며, 인간 본성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H3)) 그러한 본성을 변화시키면 나쁜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 *Our Posthuman Future*¹⁰⁾에서 인간의 본성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인간 향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의 생명 보수주의자들이 종교적 근거에 의존하거나 향상의 비인간화를 들어 인간 향상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¹¹⁾ 후쿠야마는 인간 본성의 개념을 논거로 하여 향상을 반대하는 독특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덕성과 평등의 근거이며,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지닌 본성 개념, (H1), (H2), (H3)가 향상 반대의 논거인 것이다. 그러나 후쿠야마의 이러한 전략은 향상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제시하는 인간 본성 개념은 향상을 반대하기에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는가? 이 글의 목적은 후쿠야마

10) Fukuyama, F., *Our Posthuman Future-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2002. 이 글에서 후쿠야마의 저서는 번역본인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송정화 역, 한국경제신문, 2009)를 사용할 것이다.

11) 예를 들어 카스나 오마수나(Donal P. O'mathuna)는 향상기술이 인간을 비인간화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신적인 성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간주한다.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s : Biotechnology and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 2003, O'Mathuna, Donal P., 이화인문과학원 역,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향상의 윤리」,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의 항상 반대 논증을 분석하고, 논증의 전제인 인간 본성 개념이 항상 반대를 위한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다.¹²⁾ 필자는 이 글에서 항상 반대 논증의 전제로 사용된 인간 본성 개념은 미흡하거나 정당하지 않으며, 항상을 반대할 이유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인간 본성에 호소하여 항상을 금지하려는 후쿠야마의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우선, 2장에서는 (H1)이 설득력이 없는 개념이며, (H1)에 따른 (O2)는 항상 반대를 위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H2)가 정당한 평등의 원리가 아니며, (H2)만으로는 (O2)가 함축되지 않고, (H2)에 의한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H3)가 (O3)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2. 도덕성의 근원으로서의 인간 본성과 항상 반대

2-1. 본성의 변경과 도덕성에의 위협

후쿠야마가 항상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1) 인간 항상은 도덕성을 변화시킨다.

후쿠야마는 항상을 추진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성이 변화되는 위험에 처한다고 본다.¹³⁾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H1) 인간의 본성은 도덕성의 원천이다.

후쿠야마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구별하는 도덕

12) 이 글의 목적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옹호와 상관없이, 후쿠야마의 인간 항상 반대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이 글이 후쿠야마의 항상 반대 논증을 비판한다고 해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3) Fukuyama, F., 송정화 역,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2009, 135쪽. 이 저서는 다음 각주부터 PF로 표기함.

감이나 권리, 정의와 같은 도덕적 원칙들, 바람직한 삶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본성에서 생성된다고 한다.¹⁴⁾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 종의 생득적이고¹⁵⁾ 보편적인¹⁶⁾ 행동과 특성들의 총합¹⁷⁾’으로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정서, 인지, 감정, 욕구, 경향, 등을 말한다. 즉, 후쿠야마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 종의 특성들로부터 도덕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도덕이란 인간의 쾌락과 고통, 욕망, 열망, 혐오, 분노, 죄의식, 기쁨, 인정에 대한 욕구, 정의감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데에 따르는 수치심 등 다양한 인간의 감정¹⁸⁾과 자연적인 경향¹⁹⁾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이 비도덕인 이유는 생존에 대한 욕구, 타인과의 공존에 대한 필요,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연적인 경향, 살인에 대한 공포 등등의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 경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살인은 그것을 끔찍하게 느끼고 기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생명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나 경향성이 없었다면, 살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생명의 가치, 생명권 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후쿠야마에 따르면 도덕은 그자체로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본성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선택됨으로써 도덕이 되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H1)에 따르면 옳고 그름은 인간의 본성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변경하는 일은 기존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변경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야마는 인간 향상이 바로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다. 향상기술은 인간의 생득적인 유전자나 특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 컴퓨터 칩, 동물의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인간의 한계

14) PF, 161-2쪽.

15) PF, 208쪽.

16) PF, 217쪽.

17) PF, 202쪽.

18) PF, 182쪽.

19) PF, 197쪽.

20) 후쿠야마의 도덕에 대한 견해는 ‘자연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철학사에 있어서 자연주의는 오류라고 규정되었으나, 그는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주장자체가 오류라고 비판한다. PF, 177쪽.

와 조건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 향상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수명을 연장하고 수백차원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위험한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본성을 변경하는 인간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2-2. (H1)으로서의 본성 변경은 도덕성에 대한 위협인가?

후쿠야마는 자신의 (H1)을 근거로 (O1)을 주장하고, (O1)을 통해 향상을 반대한다. (H1)을 근거로 하는 후쿠야마의 (O1)은 타당한 주장이며, 향상을 반대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필자는 첫 째, (H1)은 설득력이 없으며, 둘 째, (H1)에 의한 (O1)은 향상금지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H1)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개념인지 검토해보자. (H1)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인간의 도덕감이나 도덕적 원칙은 인간이 지닌 감정이나 경향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본성을 떠나서는 도덕성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H1)의 가장 큰 난점은 비도덕적인 성향을 포함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도덕의 원천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선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는 동시에 악에 대한 경향성도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에는 폭력성, 공격성, 이기심이 포함된다. 인간 집단에서 살인이나 폭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간에게는 인종차별, 잔인한 처형, 원형경기장, 침략, 노예시장 등을 옳은 것으로 느꼈던 역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스트롬(N. Bostrom)은 인간 본성을 도덕의 지침서로 본다는 것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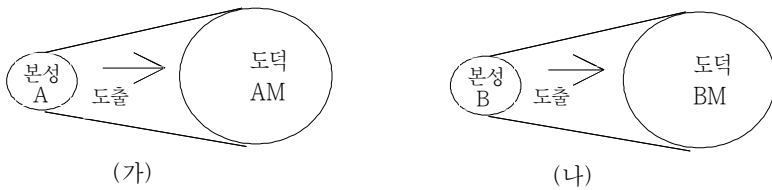
후쿠야마는 이에 대해 인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폭력을 추구하였지만 점차적으로 폭력을 금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

21) 그는 자기 개조로부터 인간 본성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PF, 262쪽.

22)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앞의 책, 205쪽.

며, 이는 폭력을 추구하는 경향 보다 폭력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더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³⁾ 즉 인간의 경향성은 폭력보다는 도덕적인 비폭력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이미 폭력을 비도덕으로, 평화를 도덕으로 규정함이 전제되어 있다. (H1)에 따라 인간의 욕구가 도덕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한 노예시장, 원형경기장 등의 제도들 역시 도덕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후쿠야마가 과거 인간의 역사에서 존재해왔던 폭력적인 제도들을 비도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본성과 독립된 도덕률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폭력과 비폭력이 모두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자가 비도덕이고 후자가 도덕인 이유를 다시 본성에 호소하여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도덕성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H1)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자는 (H1)으로부터 나온 (O1)은 향상을 금지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H1)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의 원천이며, 본성을 변화시키면 도덕성도 변화된다고 해보자. 이는 다음 그림 (가)에서 (나)의 변화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향상 이전은 그림에서 (가)이며, 향상 이후는 (나)이다. (가)에서 인간 본성은 A이며, (H1)에 따라 A에서 도덕 AM이 나온다. 마치 원형 조명에서 불빛이 나오듯 본성에서 도덕이 생성되며, 본성 A 없이는 도덕 AM도 없다. 그리고 본성 A를 향상하면, 본성 A는 A와 다른, 이를테면 (나)에서의 B로

23) PF, 197쪽.

변화된다. 변화된 본성 B로부터는 AM이 아닌 BM이 생성된다. 이러한 AM에서 BM으로의 변화가 (O1)이 주장하는 도덕성의 변화이다. 후쿠야마는 이러한 변화는 도덕성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 판단하며 향상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후쿠야마의 향상 반대 논증은 위의 그림과 연계할 때,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1)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관계는 (가)와 같다. : (H1)에 따라서
- (2) 향상은 본성을 변경한다.
- (3) 본성을 변경하면 (나)와 같이 된다. : (O1)
- (4) 그러므로 향상은 도덕성에 위협적인 것이며, 이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필자는 (1)과 (2)로부터 (3)에 이를 수는 있으나, (3)은 (4)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3)은 다만, 본성의 변화로 인해 도덕성이 변화됨을 주장하는 것이지, 도덕성에 위협적인 것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성에 위협적이라는 것은 도덕과 비도덕의 구분이 붕괴됨을 뜻한다. 그림 (나)에는 도덕과 비도덕의 구분이 사라진, 도덕성의 붕괴가 담겨져 있는가? 후쿠야마는 아마도 새로 생성된 BM이 비도덕적인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나)에는 비도덕을 도덕으로 잘못 간주하게 되는 도덕성의 붕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BM이 비도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AM의 기준에서이며, 후쿠야마의 (H1)이 참인 한, BM은 본성 B에서 생성된 또 하나의 새로운 도덕에 해당한다. 즉 (H1)에 따르면, BM 역시 AM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경향, 욕구, 감정 등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BM을 비도덕이라 말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 대다수²⁴⁾의 본성 변경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BM의 기준에서는 과거의 AM이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고 간주될 것이다. 후쿠야마가 본성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도덕의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는 BM이 도덕성에 위협이 됨을 보일

24) 후쿠야마에 따르면 인간본성은 보편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성이 A에서 B로 변화된다는 것은 사회 대다수의 보편적 본성이 B로 변화됨을 뜻하며, 따라서 BM으로의 변화는 사회 대다수의 도덕성의 변화를 뜻한다.

수 없을 것이다. 즉 (H1)으로서의 본성 변경이 함축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에의 위협((4))이 아니라, 도덕성의 변화((3))일 뿐이다.

뷰캐넌(A. Buchanan)은 (H1)은 도덕이 본성에 제약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로부터 본성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따라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²⁵⁾ 예를 들어 그림이 캔버스에 제약된다고 해보자. 캔버스가 있어야 그림이 나오고 캔버스의 크기나 재질이 그림의 특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그림이 캔버스에 제약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캔버스를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²⁶⁾ 그림이 캔버스에 제약된다는 사실은 캔버스를 바꾸는 것에 해악이 있음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이 본성에 제약된다는 사실은 본성이라는 캔버스를 바꾸는 것의 유해성을 함축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성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후쿠야마의 (H1)은 향상을 금지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H1)은 설득력이 없는 개념일뿐더러, 향상을 금지할만한 (O1)의 유해성을 함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O1)이 위협적이고 유해한 것이며,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는 (H1)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본성에서 나온 AM과 BM 가운데 AM만이 도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H1)의 자연주의가 아닌 다른 이론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평등의 근원으로서의 본성과 향상 반대

3-1. 불평등의 위협

후쿠야마가 향상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2) 인간 향상은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25) Buchanan, A., "Human Nature and Enhancement", *Bioethics*, Vol.23, No.3, 2009, 144쪽.

26) 같은 곳.

후쿠야마는 본성을 변경하여 우월한 능력을 지니게 된 향상인에 비하여 본성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은 비향상인은 평등한 대우와 권리를 점유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되어도 비향상인은 불평등의 부당함을 피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그는 그 논거로 (H2)를 제시한다.

(H2) 인간 본성은 평등의 근원이다.

후쿠야마는 인간 존재는 피부색, 외모, 문화, 사회적 지위, 성별, 혈통, 천부적 재능 등 특징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지만 모두 인간의 본질(essence)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며 그 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말한다.²⁷⁾ 그리고 그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나 언어, 사회성과 같은 특정한 하나의 특성이 아닌, '인간 본성 전체'에서 구성되는²⁸⁾ 신비로운 것²⁹⁾이라고 말하며, 이를 '요소 x'라고 표현한다.³⁰⁾ 즉, 후쿠야마에 따르면, 평등은 인간 본성 전체에서 나오는 본질에 근거하며, 본질은 특정한 특성으로 규정될 수 없기에 'x'라고 부른다. 그는 인간은 모두 이 x를 지녔다는 점에서 인권, 정치권, 표현,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동등하게 누리며, 동등하게 존중된다고 말한다.³¹⁾ 그리고 그에 따르면 x로 인해 인간은 여타의 생물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³²⁾를 점유하며, 여타의 생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³³⁾을 지닌다고 한다.

...모두 요소 x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존중하

27) PF, 229쪽.

28) PF, 261쪽.

29) PF, 260쪽.

30) PF, 229쪽. 후쿠야마가 인간의 본질을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본성을 이루는 특성들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쿠야마의 이러한 본성 개념((H3))은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1) PF, 229쪽.

32) 도덕적 지위란 그것을 점유한 존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고려되고 대우 받을 권리를 할당받게 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채리, 「포스트휴먼의 공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71집, 2013, 172쪽.

33) PF, 261쪽.

도록 요구된다. 요소 x 가 없는 모든 생물체에 대해서는 요리하고, 먹고, 고문하고, 노예로 만들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비인류적인 죄'에 해당한다. 요소 x 가 있는 존재에게는 인권뿐 아니라 성인이 되면 다양한 정치적 권리로써 표현, 종교,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영위할 권리가 부여된다.³⁴⁾

즉 인간의 본성에서 구성되는 인간의 본질인 x 가 평등과 존엄성의 근거인 것이다. 인간 존재들은 모두 x 를 지님으로써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x 가 없는 존재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말하자면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인간 자신의 본성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향상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변경하며, 따라서 후쿠야마는 향상으로 인해 인간 평등은 파괴된다고 본다.

트랜스휴머니즘의 ... 희생물은 평등이다.... 권리의 평등에 대한 관념에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피부색, 미모, 심지어 지능에서의 명백한 차이를 미미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을 변경하려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즘 프로젝트의 핵심이다.³⁵⁾

향상 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나노 단위의 기계를 이식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변형한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향상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보편적인 특성으로서의 인간 본성은 변경되며,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인 x 는 다른 것, 이를테면 y 나 z ... 와 같은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향상으로 인해 공통된 본성은 사라지고 본성의 우열이 나타날 것이다. 후쿠야마는 본성이 우월하게 변경된 존재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 보다 우월한 권리를 점유할 것이라고 본다.³⁶⁾ 예컨대 모든 면에서 유전자적으로 향상된 집단

34) PF, 229쪽.

35) Fukuyama, F., "Transhumanism", 앞의 책, 42-3쪽.

36) PF, 235쪽.

의 등장은, 그에 따르면, 유전자 귀족계급과 하층계급을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유전자 하층계급은 안장을 등에 얹고 태어나는 반면, 유전자 귀족계급은 그 위에 앉아 박차를 가할 장화를 신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³⁷⁾ 그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할 때, 비향상인에게는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들에게는 향상인과 공통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후쿠야마는 “자연적으로 노예적 본성을 갖는 민족이 있다면, 그 노예제는 본질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향상인 보다 열등한 본성을 지닌 비향상인에게는 열등한 권리가 주어짐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⁹⁾ 즉 인간 향상이 비향상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 해도 그 불평등은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부당함을 피력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이러한 불평등의 비극을 정당화하는 인간 향상의 본성 변경은 애초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H2)로서의 본성 변경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후쿠야마는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지녔다는 점에서 평등한데((H2)) 그 본질의 근원인 본성을 변경하면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O2)) 이러한 주장은 옳은가? (H2)로서의 본성을 변경하면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가? 필자는 첫 째, (i) (H2)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평등의 원리가 아니며, 둘째, (ii) (H2)는 (O2)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iii) (O2)가 (H2)에 호소하는 한,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본다.

(i) 우선, (H2)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자. 인간은 인간의 x로 인해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점유한다는 (H2)는 중차별주의(speciesism)에 바탕을 두

37) PF, 29쪽.

38) 후쿠야마는 ‘평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점에서 똑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PF, 234쪽.

39) PF, 241쪽.

고 있다. 종차별주의란 자신이 소속한 종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를 말한다.⁴⁰⁾ x가 있다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x가 없다면 노예화해도 무방하다는 (H2)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인간 종의 x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 종이라는 이유에서 도덕적 지위를 할당받고 다른 종은 인간 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도덕적 지위를 배척하는 종차별주의의 일환이다. 어떤 근거에서 인간의 x가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되는가? 가령 외계로부터 한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고 해보자. 그 생명체는 인간 종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의식과 감정이 있고 도덕적으로 행위한다. 우리는 그의 도덕적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후쿠야마의 기준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에게는 인간 종의 무수한 특성들 전체가 상호작용하여 나오는 인간 고유의 x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H2)에 따라 그 존재를 요리하거나 먹고 노예화해도 무관할 것이다.

싱어(P. Singer)는 종차별주의는 평등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은 모든 존재의 동일한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예컨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이 외계 생명체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이익이라면 그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외계 생명체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을 근거로 동일한 이익을 특별히 더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⁴²⁾ 즉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지녔으므로 평등하다는 주장은 동일한 이익을 인간 종에 근거하여 차별하려는 불평등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⁴³⁾ 싱어는 성별,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주장하는 성차별주의, 인종주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종을 근거로 이익의 차별을 주장하는 종차별주의 역시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⁴⁴⁾ 다시 말해서 후쿠야마가 향상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

40)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35쪽.

41) 김성한, 종차별주의 옹호에 대한 대응-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7, 255쪽.

42) Singer, P., 앞의 책, 139쪽.

43)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것. 이체리, 앞의 책, 173-7쪽.

해 제시하는 평등에 대한 소견인 (H2)는 실은 불평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H2)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ii) 다음으로, 필자는 후쿠야마가 (O2)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H2)는 사실상 (O2)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본다. (H2)로서의 본성을 변경하면 (O2)가 함축되는가? 본성을 변경하여 평등의 근거인 x 가 사라진다면, 이로 인해 불평등이 따라 나온다는 것은 함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평등이 비향상인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함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H2)에 따라 x 가 도덕적 평등의 근거이며, 여타의 피조물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존엄성의 근거라면, 불평등은 비향상인에 대한 것이기 보다 향상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장부터 향상인을 'E'로, 비향상인을 'U'로 부르기로 한다. (H2)가 참이라면 향상으로 인해 x 가 훼손된 E는 존엄성의 근거인 x 가 없으므로 요리하고, 먹고, 노예화해도 될 것이며, 평등의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U와 동등한 생명권, 자유권, 정치참여권 등을 가질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쿠야마의 주장과 달리 (H2)로서의 인간 본성을 변경하면 U에 대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O2)는 함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x 를 잃은 E가 U 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쿠야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E가 U 보다 우월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월한 본성을 지닌 유전자 귀족계급이 유전자 하층계급 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노예의 본성을 가진 자에게 노예제도는 정당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본성의 우열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정해진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는 (H1) 외에 '우월한 본성이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H1) 외의 전제를 넣어 후쿠야마의 논증을 정리하면 다

44) Singer, P., 앞의 책, 27-39쪽.

45) 윌슨 역시 후쿠야마의 주장에 이러한 전제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Wilson, J., "Transhumanism and Moral Equality", *Bioethics*, Vol.21, No. 8, 2007, 421쪽.

음과 같다.

- (1) 인간 본성에서 나온 x 는 평등의 근거이다. : (H2)에 따라
- (2) 인간 향상은 x 를 훼손한다. : 향상은 우월한 본성과 열등한 본성을 양산한다.
- (3) 우월한 본성은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
- (4) 그러므로 인간 향상은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 (O2)
- (5) 그러므로 인간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 x 는 평등의 근거인데((1)) 향상은 공통된 본질 x 를 훼손하여 본성의 우열을 양산하고((2)), 우월한 본성을 지닌 E 는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3)) U 에 대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고((4))이라는 것이다. 위의 논증에서 (O2)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3)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3)이 추가된 논증에서 (H2)는 사실상 불필요한 전제로 보인다. (4)인 (O2)는 (2), (3), (4)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평등의 근거인 x 에 대한 언급 없이도, 향상이 본성의 우열을 양산하고((2)) 우월한 본성은 우월한 권리를 가지므로((3)) 우월한 본성을 지닌 E 가 U 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는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도출될 수 있다. 말하자면 U 에 대한 불평등의 정당화는 향상으로 인해 등장한 우월한 E 가 U 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평등의 근원이라는 전제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필자는 후쿠야마가 (O2)를 주장하기 위해서 굳이 (H2)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H2)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필자가 보기에, 그는 향상을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H2)가 제시하는 '평등' 개념에 따르면 향상 반대 이유인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3)에서 말하는 '우월한 권리'란 무엇이며, (4)에서 말하는 U 에 대한 '불평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윌슨(J. Willson)에 따

르면, E의 우월한 권리로 인한 불평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⁴⁶⁾ 하나는 (a) E가 직업, 학력, 계층, 재산 등 여러 이익과 혜택에 있어서 보다 많은 권리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이며, 다른 하나는 (b) E가 U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점유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이다. 즉 (a)는 이익과 혜택에서의 우월한 권리가 주는 불평등이라면 (b)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우월한 권리로 인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a)와 (b) 가운데 어떤 것이 후쿠야마가 말하는 우월한 권리에 의한 불평등인가? 윌슨이나 뷰캐넌, 더글라스(T. Douglas) 등은 이를 (b)로 해석한다.⁴⁸⁾ 후쿠야마의 논증의 전제인 (H2)가 의미하는 ‘평등’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x는 피부색, 외모, 혈통, 지위 등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이기 때문에, x가 훼손되어 불평등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지위의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후쿠야마가 (H2)에 호소하여 (O2)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3)에서 말하는 우월한 권리는 ‘우월한 도덕적 지위’로 해석되며, (O2)의 불평등은 도덕적 지위의 불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즉, 후쿠야마의 논증은 (H2)에 의해 이렇게 해석된다. : 향상은 본성의 우열을 양산하고((2)), 우월한 본성은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점유하기 때문에((3')), 우월한 본성을 지닌 E는 U 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불평등이 정당화되며((4')) 따라서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윌슨과 뷰캐넌은 도덕적 지위는 우월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 할당되는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향상으로 인해 E가 U 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후쿠야마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⁴⁹⁾

46) Wilson, J., 앞의 책, 421쪽.

47) (a)의 경우 E가 U 보다 이익과 혜택에 있어서 우월한 권리를 가질 뿐 생명권, 자유권, 등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는 E와 U는 동등하며, (b)의 경우 E는 U보다 도덕적 지위에 있어서 우월한 권리를 가지므로 U는 E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에 있어서 차별되며, E에 의해 노예화되거나 도구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48) Wilson, J., 앞의 책, 421쪽, Buchanan, A., "Moral Status and Human Enhanceme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37, No. 4, 2009, 359-69쪽, Douglas, T., Douglas, T., "Human Enhancement and Supra-Personal Moral Status", *Philosophical Studies* Vol. 162, 2013, 473-97쪽.

즉 우월함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믿음, (3')은 정당한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반드시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그들의 우월함의 등급을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 향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향상된 E는 U 보다 지능이나, 재능, 도덕적 행위 능력, 공감 능력 등이 월등하게 우월해지며 우월한 본성을 지닌다. 그러나 E가 U보다 월등한 지능, 도덕성, 등을 지닌다고 해서 U 보다 생명, 자유, 정치에의 권리를 더 가지거나, U를 노예로 삼는 것은 앞의 예와 다를 것 없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E의 우월함을 근거로 U가 도덕적 지위의 불평등을 겪게 되더라도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라는 후쿠야마의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⁵⁰⁾ 따라서 그는 정당하지 않은 (O2)를 근거로 향상을 반대할 수 없다. 그가 향상 반대를 위해 (O2)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는 (H2)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O2)의 부당함의 요인은 전제 (3)을 (b)의 견지에서 해석하게끔 이끈 (H2)에 있기 때문이다.⁵¹⁾

(i), (ii), (iii)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후쿠야마가 향상을 반대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H2)는 사실상 별반 역할을 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된다. (H2)는 도덕적으로도 타당한 평등의 원리가 아니며, (H2)는 (O2)를 함축하지 않으며, (H2)의 의미에 따라 해석된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H2)는 (O2)의 논리적인 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향상 반대를 위한 (O2)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H2)

49) 윌슨과 뷰캐넌은 각각 후쿠야마를 비슷한 논거로 비판하고 있다. Wilson, J., 앞의 책, 419-425쪽. Buchanan, A., "Moral Status and Human Enhancement", 앞의 책, 346-382쪽.

50) 물론 향상의 미래에 그러한 불평등의 비극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3)과 같은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필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우열에 따른 불평등이 정당한 것이라는 후쿠야마의 주장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51) Buchanan, A., 앞의 책, 362-3쪽.

에 호소하여 (O2)를 주장하고 향상을 반대하려는 후쿠야마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4. 본성의 상호의존성과 향상반대

4-1. 상호의존적인 본성 변경의 문제

후쿠야마가 향상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3) 인간 향상은 인간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O3)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H3) 인간 본성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가진다.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은 이성, 언어, 사회성, 정치성, 감정, 수치심, 동정심 등과 같은 인간 종의 특성들로 이루어진 특성들의 총체이며, 그 특성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⁵²⁾ 특성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어떤 특성도 다른 특성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⁵³⁾ 예컨대 그는 정치성은 언어와 사회성의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언어 및 사회성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특성이며,⁵⁴⁾ 이성은 감정이 동반될 때 온전히 발현되고, 도덕적 선택은 이성과 더불어 자부심이나 분노, 수치심, 동정심과 같은 감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⁵⁵⁾ 즉 본성을 이루는 특성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된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나의 특성만 변화해도 다른 특성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본성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H3)에 따라 후쿠야마는 몇몇 나쁜 특성들을 변화시키려는 향상

52) PF, 247-264쪽.

53) PF, 261쪽.

54) PF, 252-61쪽.

55) PF, 261-2쪽.

은 필연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나쁜 특성은 결국 좋은 특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⁶⁾

생명공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덜 복잡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가?
..... 우리는 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이를 더 유순하게 만들 수 있
지만, 그 대가로 천재성이나 야망 또는 풍부한 다양성과 같은 소중한 자질들을
넘겨주어야 한다..... 인간에게 이런 악이 없다면 연민이나 동정, 용기, 영웅적
자질, 단결, 강인함과 같은 특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⁵⁷⁾

즉 우리가 몇몇 나쁜 특성들을 변경하면 외려 천재성, 야망, 다양성, 연민, 동정, 용기, 단결과 같은 훌륭한 특성들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우리가 나쁜 특성이라 여기는 것들은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타인의 고통에 연민이나 동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⁵⁸⁾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며,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사랑 역시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죽음은 인간 종으로 하여금 생존하고 적응하도록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한다.⁵⁹⁾ 그는 특성들이 서로 연결된 본성의 복잡한 구조에서 몇몇 원하지 않은 특성을 고치는 일은 결국 좋은 특성들을 고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이렇게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는 인간 본성에 손을 대는 일을 금지하고 인간의 본성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⁰⁾

4-2. (H3)로서의 본성 변경은 나쁜 결과를 함축하는가?

(H3)를 통해 (O3)를 주장하는 후쿠야마의 향상 반대는 타당한가? 후쿠

56) Fukuyama, F., "Transhumanism", 앞의 책, 42-3쪽.

57) PF, 262-3쪽.

58) PF, 262쪽.

59) Fukuyama, F., "Transhumanism", 앞의 책, 42-3쪽.

60) PF, 262쪽.

야마는 (H3)를 이용하여, 하나의 특성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부르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야마가 (H3)를 이용하여 향상을 금지하는 전략은 성공적인가?

우선, 후쿠야마는 (H3)를 생물학이나 진화생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사변적인 가설로서 제시하고 있다.⁶¹⁾ (H3)는 믿을만한 가설인가? 필자가 보기에 몇몇 특성만 변경해도 전체적인 본성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후쿠야마의 가설은 항상 이외에 질병 치료나 생물학적 진화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특성 변경은 질병 치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 치료는 항상과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⁶²⁾ 암, 말라리아,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의학기술은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렀을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종의 향상이며, '질병에 취약한 특성'을 변경한 것이다. 후쿠야마의 주장에 따르면 수술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들은 수명이 연장되는 대신에 천재성, 동정, 연민, 단결 등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인간은 그동안의 진화를 통해 숭한 변화를 겪어왔다. 신체와 각종 장기의 기능, 지능, 면역체계는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현재 (H3)가 주장하는 나쁜 결과들로 점철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후쿠야마의 가설 (H3)는 경험적 확증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후쿠야마가 (H3)를 통해 향상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특성을 변경하는 모든 노력들 예컨대 질병치료나 수명연장을 위한 운동, 식이요법, 비타민 요법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의존적인 특성들의 예민한 구조는 컴퓨터 칩을 이식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는 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

61) 신상규, 인간향상과 인간본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후쿠야마의 논증 비판, 『철학적 분석』, 27호, 한국 분석철학회, 2013, 125쪽.

62) Naam, R., *More than Human*, New York, 2005, 5-9쪽, N. Bostrom & R. Roache,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앞의 책, 120쪽.

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H3)로부터 특성 변경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O3))는 후쿠야마의 논증은 옳은지 살펴보자. 필자는 (H3)는 (O3)를 이끄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H3)는 특성들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맥머한(J. McMahan)은 오히려 (H3)의 인간 본성 변경으로 인해 인간은 뛰어난 공감능력⁶³⁾과 감정통제 능력을 가지게 되며, 예전 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⁶⁴⁾ 이기심, 욕심, 폭력성, 경쟁심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던 도덕률이 본성의 변화로 더 커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악한 특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면 다른 특성 역시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다는 (H3)가 옳다고 하더라도, 악한 특성의 변경 결과는 후쿠야마의 예측과 달리 도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본성의 변경은 (H3) 구조 하에서 용기, 단결, 연민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붕괴시킬 수도 있지만, (H3) 구조 하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H3)가 보여주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인해 한 특성의 변화가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일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H3)는 특성 변경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미스(K. Mark Smith)는 향상된 본성에서 나쁜 것이 따라 나온다는 후쿠야마의 주장은 근거 없는 확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⁶⁵⁾

뷰캐넌은 인간 본성의 상호의존성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함에 있어

63) 인공두뇌학자 워릭(K. Warwick)은 이미 2002년에 자신의 신경체계와 부인의 신경체계를 연결하여 감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Warwick, K., "Cyborg morals, Cyborg value, Cyborg ethic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 5, No. 3, 2003, 135쪽.

64) McMahan, J., "Cognitive Disability and Cognitive Enhancement", *Metaphilosophy*, 40, 2009, 604쪽.

65) Smith, Mark, K., "Saving Humanity? : Counter-Arguing Posthuman Enhancement", *Journal of Evolution & Technology*, vol. 14, 2005, 46쪽.

서 우리 자신을 망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위한 근거이지, 향상을 멀리하라는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⁶⁶⁾ 즉 (H3)는 향상을 금지하는 근거라기보다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근거에 불과한 것이다. 나쁜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향상을 추진하면서도 가능하며 후쿠야마 역시 나쁜 결과의 가능성만으로는 향상을 반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유전공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희망하는 그런 종류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서 유전공학을 결코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⁶⁷⁾고 말한다. 즉 후쿠야마는 나쁜 결과의 가능성이 아닌, 나쁜 결과의 필연성이 향상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인간 본성의 구조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호소를 통해 나쁜 결과를 확보하려던 후쿠야마의 생각과 달리 (H3)의 역할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염려에 국한된다.

정리하면, 향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는데, (H3)가 보여주는 것은 ‘나쁜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도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본성의 구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후쿠야마가 (H3)를 통해 향상을 금지하려는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필자는 이 글에서 인간 본성 개념을 근거로 향상을 반대하는 후쿠야마의 논증을 분석하고, 논증의 전제인 인간 본성 개념이 향상 반대를 위한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음을 논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66) Buchanan, A., 앞의 책, 148쪽.

67) PF, 134쪽.

1.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의 원천이므로((H1)) 본성을 변경하는 향상은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위협적인 것이며((O1)) 따라서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 그러나 선한 경향성과 악한 경향성 모두를 포함하는 본성이 도덕/비도덕을 구분하는 도덕성의 원천이라는 (H1)은 설득력이 미흡하며, (H1)에 의한 (O1)은 향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H1)에 따라 도덕이 본성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참이라면, (O1)은 새로운 도덕이 생성됨을 함축할 뿐, 도덕성 붕괴의 위협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은 평등의 근원이므로((H2)), 이를 변경하는 향상은 비향상인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O2))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첫째, 후쿠야마가 향상을 반대하기 위해 호소하는 (H2)는 중차별주의의 일환으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평등의 원리가 아니며, 둘째, (H2)는 후쿠야마의 주장과 달리 향상의 반대 이유인 (O2)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며, 셋째, (H2)가 제시하는 '평등'의 의미에 따르면 (O2)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H2)는 향상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필요한 전제라고 볼 수 있다.

5.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H3)), 본성 변경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며((O3)) 따라서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6. 그러나 (H3)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가설에 불과하며, (H3)는 (O3)를 함축하지 못한다. (H3)가 보여주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인해 한 특성의 변화가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일 뿐이지 결과의 좋고 나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는 후쿠야마가 전제로 하는 (H1), (H2), (H3)는 미흡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개념이며, 이들 각각은 향상 반대를 이끌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H1)에 의한 (O1)으로는 향상을 반대할 수 없으며, (H2)는 향상 반대 이유인 (O2)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못하며, (H2)

에 의한 해석을 따르면 (O2)는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또한 (H3)는 (O3)를 이끌지 못한다. 따라서 후쿠야마가 전제로 하는 인간 본성 개념은 향상을 반대하는 타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인간 본성에 호소하여 본성 변경이 위험한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하려던 후쿠야마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않다고 본다.

참고문헌

- Babin, D.,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궁리, 2007.
-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Bioethics*, vol.19, No. 3, 2005.
- Buchanan, A., "Human Nature and Enhancement", *Bioethics*, Vol.23, No.3, 2009.
- Buchanan, A., "Moral Status and Human Enhanceme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37, No. 4, 2009.
- Douglas, T., "Human Enhancement and Supra-Personal Moral Status", *Philosophical Studies*, Vol. 162, 2013.
- Fukuyama, F., "Transhumanism", *Foreign Policy*, No.144, Sep/Oct., 2004.
- Fukuyama, F., 송정화 역,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2009.
-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s : Biotechnology and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 2003.
- Marina Maestrutti, "Cyborg Identities and Contemporary Techno-Utopia", *Journal International de Bioetique*, vol. 22, No. 1-2, 2011.
- McMahan, J., "Cognitive Disability and Cognitive Enhancement",

Metaphilosophy, 40, 2009.

Naam, R., *More than Human*, New York, 2005.

N. Bostrom & R. Roache,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New Waves in Applied Ethics*, eds., J. Ryberg & T. Peterson, Pelgrave Macmillan, 2008.

Sandel, M., 강명신 역,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2012.

Smith, Mark, K., "Saving Humanity? : Counter-Arguing Posthuman Enhancement", *Journal of Evolution & Technology*, vol. 14, 2005.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Warwick, K., "Cyborg morals, Cyborg value, Cyborg ethic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 5, No. 3, 2003.

Wilson, J., "Transhumanism and Moral Equality", *Bioethics*, Vol.21, No. 8, 2007.

김성한, 「종차별주의 옹호에 대한 대응-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7.

신상규, 「인간향상과 인간본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후쿠야마의 논증 비판」, 『철학적 분석』, 27호, 한국 분석철학회, 2013.

이상현, 『융합시대의 기술윤리』, 생각의 나무, 2012.

이채리, 「포스트휴먼의 공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71집, 2013.

Abstract**Human Enhancement and Human Nature
A Critique of Fukuyama's opposite strategy for
enhancement**

Chaelee Lee

In this paper, I criticize the strategy of Fukuyama who opposes enhancement by appealing to human natur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Fukuyama opposes enhancement. First, human nature is the source of morality ((H1)), therefore, enhancement that changes human nature is threatening to change morality ((O1)). Second, human nature is the source of equality ((H2)), therefore, change of human nature justifies inequality for those who are not enhanced ((O2)). Third, human nature has interdependent structure ((H3)), therefore, change of human nature brings about bad results ((3)). But in this writer's opinion, first, (H1) has no persuasion force, and (O1) by (H1) is not a sufficient reason for opposing enhancement. It is because (O1) that follows (H1) connotes only that new morality is formed, and does not connote the threat of the collapse of morality. Second, (H2) is not a morally justified principle of equality, and (H2) does not imply (O2), and (O2) by (H2) cannot become a justifiable assertion. Third, (H3) lacks empirical evidence, and (H3) does not connote (O3). Therefore, the strategy of Fukuyama who attempts to oppose enhancement by appealing to the concept of human nature is considered not successful.

【Key words】 enhancement, human nature, F. Fukuyama, morality,
equality

논문접수일: 2014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1일